

합격기
(2013년(제55회) 사법시험 합격)

수많은 시행착오의 수험기



서 동 민

- 건국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 2013년 제55회 사법시험 합격

I. 들어가며

수험생활을 하면서 고시계의 합격수기는 빠짐없이 정독하였지만, 제가 직접 합격수기를 쓰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수험생활이 길기도 하였고, 결코 남에게 자랑할 만한 생활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 글이 읽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서 편집장님께 고사의 말씀을 드렸지만, 편집장님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고, 저처럼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사람의 글도 하나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수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II. 수험생활

1. 제1차 시험

(1) 2차시험 불합격 직후 ~ 12월 초

해결이 없는 6시 합격인이라 2차시험 불합격 이후 3,4개월에 걸친 짧은 시간 내에 1차합격하는 팁을 알려 드리는게 더 도움이 될 거 같아서 부득이 1차시험 수험생활은 이 시기로 제한하여 쓰겠습니다.

10월 중순쯤에 불합격 통보를 받고 1주일간 두문불출하다가 바로 1차책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교재를 바꾸지 않고 종래 보던 책을 그대로 보았습니다. 헌법은 정회철 헌법기본강의, 형법은 신호진 요론, 민법은 권순한 객관식 판례집을 보았습니다. 헌법같은 경우는 부속법령이 많이 바뀌어서 신판을 사서 줄을 다시 긋는 작업을 하였고, 형법과 민법은 신판을 사서 구판에 없는 판례 등을 잘라서 오려붙이는 작업을 하였

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1회독을 하니 12월 초가 되었습니다.

1,2차 시험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1차시험에서는 기출문제집을 많이 풀었습니다. 종래 제가 보던 책에 10년치 기출지문이 빨간색 줄로 그어져 있었고, 2차시험을 준비하면서 공백이 생긴 2년치 1차 기출은 기출문제집을 다시 사서 책에다 밑줄을 그었습니다. 1차 시험은 기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터라, 기출지문 분석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2) 12월 중순 ~ 1차 시험일

이렇게 1회독을 하면서 책 정리를 마치고, 바로 8-6-4-2의 4회독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2회독때에는 책을 천천히 보면서 깊이 있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고, 나중 2회독때는 기출지문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책을 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선택과목을 정리했는데 저는 노동법을 택했습니다. 선택과목도 기본3법에 준하는 회독수를 거쳤고, 보통은 주말에 선택과목만 보고 공부를 끝내곤 했습니다.

이 시기에 학원에서 실시하는 전국모의고사를 많이 응시해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항상 체크하였습니다. 저는 비용도 아끼고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 얼굴도 볼 겸 학교 고시반에서 실시하는 전국모의고사를 응시하였습니다. 12월 이전에 보았던 모의고사에서는 고시반에서 하위권이었는데 성적이 점점 올라 1월 중순 즈음에는 고시반에서 1등을 하였습니다. 그 때 성적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시는구

나 생각하면서 한참동안을 흥대거리를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회독수는 시험일 1주일전 실시했고, 2-2-2-1의 순서로 책을 돌렸습니다. 시험 전날에는 선택과목과 헌법 부속법령만 보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시험 당일날 헌법과 형법은 평이했는데 민법이 너무 어려워서 올해는 떨어졌나 하고 절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가채점 결과 안심할 수 있는 점수가 나와서 시험 다음날부터 바로 2차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2. 제2차 시험

(1) 5시 불합격과 2순환 돌입

5시를 보고 나서 수험생활 중 가장 잘했다고 생각해서 합격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발표일날 제 이름은 없었고 저는 크게 실망하여 수험생활을 접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이제는 그만 하라고, 취직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수험생활에 염증이 나서 바로 취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입사원서를 내려면 토익점수가 필요한지라 부리나케 영어학원을 등록해서 1달동안 토익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천적으로 귀가 얇아서(?) 주위 사람들의 만류가 계속 맘에 걸렸습니다. 한번 남은 2차 기회를 왜 날리느냐, 어차피 늦은 나이인데 올해 취직하나 내년에 취직하나 똑같다 등 이런 말들을 자꾸 들으니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고 오는데 2차를 준비해서 사범시험에 합격하겠다는 아니고 마지막으로 2차를 봐서 수험생활에 후회없는 마

침점을 찍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면서 자기합리화(?)를 한 후 부모님께 한번 더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2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굳이 신림동에 가서 학원 2순환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집에서 2순환을 혼자 준비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강의, 교재 이런 부분은 거의 신경쓰지 않고 하루 종일 제 답안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약필인지라 채점교수님께 불리한 인상은 이미 주고 들어가는 거고, 2시간내 8면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글씨체는 어느 정도 포기할 수 밖에 없고, 어떻게 하면 채점교수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이때 저보다 1년 먼저 붙은 동문 선배 권태형님의 조언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형의 조언을 노트에다 메모를 하고 형이 쓴 답안지를 구해서 제 답안지와 무엇이 다른가를 계속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다시 교재를 정리하고 단권화를 시작했습니다. 헌법은 정회철 헌법연습, 행정법은 정선균 암기장, 민소법은 이창한 핵심정리, 상법은 김혁봉 상법신강, 형법은 이재상 더 형법, 형소법은 김영환 강의안, 민법은 민법교안을 보았습니다.

거듭된 2차시험의 패인이 기출문제 분석의 소홀에 있다고 보고 기출문제집을 사서 열심히 풀었습니다. 민소법 같은 경우는 변리사 시험과 사법시험이 몇 해에 걸쳐서 유사하게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해서 변리사 기출문제집을 사서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와 같이 풀고

내용에 대해서 토의했습니다. 따로 스터디를 한 것은 아니고 1주일에 한번 정도 만나서 같이 소주를 마시고 놀다가 중간중간에 서로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식이었습니다.

(2) 3순환

3순환 때에는 직접 학원에 가서 매일 시험을 쳐야겠다는 생각에 짐을 싸서 신림동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학교 친구들이 있어서 같이 밥터디를 하면서 3순환을 시작했습니다. 민소법부터 시작했는데, 1회 시험에서 평균도 안 나오는 점수를 받고 나는 정말 안 되는 인간인가보다 하면서 절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2회 시험부터는 감을 잡고 점수가 점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6회 시험문제는 실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였는데 제 답안이 최고답안이 되었고 그때 수험생활 중 처음으로 제 실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교 친구들과 스터디는 같이 하지 않았고, 저녁 밥터디를 같이 하면서 서로 궁금한 점에 대해 물어보고 미진한 부분을 체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때 같이 밥을 먹었던 병두형, 헤리, 준현이, 광희에게는 지금도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덜렁대는 성격이라 시험에 안 나올거 같은 부분은 너무 과감히 제끼는게 단점이었는데, 밥터디 멤버들이 그 정도는 제끼면 위험하다고 항상 저에게 경고를 해서 억지로 꾸역꾸역 그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5시에 불합격했던 이유가 형법에서의 초저공 때문이었는데 (1문 14점) 그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내가 한번 형법을 정복해보겠다고 마음 먹고 하루에 1시간은 무조건 형법에 투자하였습니다. 1문의 50점짜리 총론문제는 항상 어렵게 꼬아서 나오므로 1문에 나올 수 있는 쟁점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평소에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습니다. 제 생일날 술을 잔뜩 먹고 병두형이랑 9동의 공원에서 형법 총론 이론들을 달달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던 형법인데 실제 시험에서는 딱 커트라인이 나와서 점수확인하던 날 황당하고 또 실망했습니다.

(3) 4순환 ~ 시험일

3순환이 끝나자마자 짐을 싸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시험일까지 총 3회독이 목표였는데 진도가 밀려서 2회독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상법의 경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1회독때는 회사법과 상법총론만 보고 2회독때 어수와 보험을 보는 식이었습니다. 회독수가 너무 안 나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회독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답안내용이 중요한 거라고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시험장소는 한양대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침저녁으로 잘 태워주셨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일이 있으셔서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택시에다가 제 필통을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시험볼 때 써야 할 펜들이 다 필통에 있는데 당장 아무런 펜이 없어서 당황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오시겠다던 택시기사님은 오시지 않으셨고 저는 한양대 문구점에서 처음 잡아보는 펜을 사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가뜩이나 악필인데 낫설

은 펜 때문에 글씨가 더 망가지는거 같아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지막날 민법 2교시를 보고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서 한양대를 나왔습니다. 이제 나의 사법시험 수험생활은 끝났다는 홀가분함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공존했던 순간이었습니다.

3. 발표일

법무부에서 갑작스럽게 발표일을 당겼고, 마침 발표일이 부모님께서 해외여행을 가시는 날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부모님 여행을 망치게 하고 싶지 않아 새벽에 공항에 가시는 부모님을 배웅하면서 아무런 말씀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더디게 갔고 그 순간이 너무 괴로워서 소주 한병을 사서 글라스에 담아서 한번에 다 마시고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떠 보니 오후 4시 반이었고 핸드폰을 보니 권태형 형에게 부재중 전화가 3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제가 떨어졌다면 연락 하지 않을 사람인데 전화가 온 것을 보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제 수험번호와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붙어서 좋다가 보다는 다행이다 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III.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

(1) 1차시험이든 2차시험이든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1차시험의 경우 기출지문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으며, 2차시험에서도 주요쟁점들은 몇 년에 걸쳐서 반복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는 반복해서 풀

고 분석을 해야 합니다. 특히 사법시험 뿐만 아니라 유사시험들 (행시, 변시 등) 의 기출문제와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들도 같이 챙겨서 풀어야 합니다.

(2) 2차시험에서는 답안지의 구성이 중요합니다. 객관식과 달리 주관식은 필연적으로 채점자의 의중이 반영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채점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있는지 항상 자가체크를 해야합니다. 채점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답안지는 한마디로 정의내릴 수 없습니다. 글씨가 이쁜 답안지일 수도 있고, 쟁점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답안지일 수도 있고, 판례문구를 깔끔하게 쓴 답안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게 바로 답안지의 인상인 것 같습니다. 좋은 답안지를 쓰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위에서 좋은 성적으로 붙은 사람의 답안지를 구해서 내것과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같은 논점을 썼는데 왜 저 사람은 점수가 좋고 나는 점수가 평이하냐를 늘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수험생활이 길어진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고민 없이 적당히 답안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3) 논점의 정리 부분에서는 논점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제시하고 너무 길게 쓰지 않는게 좋습니다. 이 부분을 길게 쓰면 앞으로 써야 할 부분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형법시험이라면 형법 제12조 (이하 범명생략) 이런 식으로 쓰는것도 좋은 거

같습니다. 별거 아닐지라도 채점자에게 인상이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학설은 학설대립만 있고 판례가 없는 논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단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학설 이름과 가장 관찰은 논거 1개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5) 판례는 최소 석줄 이상으로 쓰고 키워드가 정확히 들어가는게 중요합니다. 판례 문구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 키워드만 들어가도 점수 따는데는 지장이 없는 거 같습니다. 판례라는 글자는 한자로 쓰는게 채점자가 보기에 가독성이 좋습니다. 전원합의체 판례인 경우에는 학설대립을 생략하고 다수의견 반대의견으로 학설을 대체하는게 점수 따는데 더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6) 결론 및 사안의 해결에서는 실제 문제에서 주어지는 단어들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서술해야 합니다. 그래야 채점자가 보기에 이 사람이 외운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설이나 판례 부분은 모든 수험생들이 비슷하게 쓰므로 이 부분에서 점수를 잘 따야 차별화 되는 답안지가 될 수 있습니다.

IV. 생활태도

(1) 자기가 공부에 제일 잘 되는 시간에 공부를 많이 하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형 인간이라 아침 일찍 공부하고 일찍 자는 편이었는데, 제 친구

는 올빼미형이라 저랑 반대의 사이클을 타면서 항상 저를 부러워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보다 먼저 붙었습니다. 아침에 공부한다고 붙는거 아니고 밤에 공부하고 낮에 잔다고 떨어지는 거 아니니 이런점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기가 편한 시간에 공부 많이 하는게 좋습니다.

(2) 적당량의 음주는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수험생이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음주밖에는 딱히 없기도 하고요. 저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음주를 한 것 같은데 이것보다 더 많이 먹으면 좀 위험하고요. 자기가 절제할 수 있는 만큼만 음주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공부장소도 자기가 제일 공부 잘 되는 곳에서 하면 됩니다. 저는 독서실이 안 맞고 늘 원룸에서 공부했는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원룸에서 공부가 되냐고 늘 저를 신기하게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연수원에 와 보니 저 같이 방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어디서 공부를 하던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V. 마치며

6시를 보고 나서 5시보다 훨씬 못 봤다고 생각해서 합격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는데 지금 합격수기를 쓰고 있는 걸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합니다. 우선 5시 불합격후 시험을 접으려던 저에게 한번만 더 보라고 잔소리를 했던 제 주위의 많은 친구들이 고맙습니다. 그 잔소리가 아니었다면 전 지금 연수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겠죠. 10년지기 친구이자 선배이면서 수험생활을 오롯이 같이 했던 영원한 나의 형님인 권태형님께에도 감사합니다. 형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 시험에 붙지 못했을겁니다. 6시 수험기간 동안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서로 용기를 주고 힘을 주었던 박병두 형, 홍준현, 김혜리, 최광희에게도 감사합니다. 저보다 1년 일찍 붙었고 작년 발표일날 가장 먼저 축하 문자를 보내주었던 김인선 양에게도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45기 서강동문회 일을 같이 하면서 회장인 저보다도 훨씬 일 많이 하고 고생하고 있어서 불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끝까지 저를 지지하고 뒷바라지 해주셨던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석합격기
[2014년(제30회) 입법고시 수석합격]

긍정의 힘으로 합격에 이르기까지



정수현

- 충북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4학년 재학 중
- 2014년 제30회 입법고등고시 수석합격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제30회 입법고시 합격자 정수현입니다. 수험기간 내내 한 번도 합격수기를 적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운 좋게도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어 이렇게 합격 수기를 적게 되는 날이 오네요. 부족한 실력이지만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II. 수험기간

제가 2011년 8월에 처음 공부를 시작했으니 약 3년 정도 공부한 것 같네요. 작년 행정고시 2차를 응시하고 한 학기 학교를 다닌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고시 과목 공부에만 매진했습니다. 첫 1년간 공부를 한 뒤 제 실력에 부족함을 느껴 다시 한 번 휴학을 결심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학교에 돌아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부했던 것이 2차 실력의 향상에 매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III. PSAT 공부 방법

1. 기출의 중요성

PSAT에서 기출의 중요성은 모두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PSAT 공부에 그리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PSAT 공부를 함에 있어 기출을 반복하여 푸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특히 언어논리의 경우 기출에서 얻을 수 있는 바가 다른 과목에 비하여 큰 것 같습니다. 한 번 본 지문이

라도 어떠한 방식으로 보기를 추출하는지, 잘못된 지문을 만드는 방식은 어떠한지를 꾸준히 살펴보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입법고시 역시 행정고시와 다르지 않습니다. 난이도가 높기는 하지만 결국 PSAT이라는 시험이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은 동일하기 때문에 기출 분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기출을 분석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스터디를 구성하여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2. 시간 관리

PSAT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시간이 매우 짧은 시험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시간 내에 정확한 답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평소 문제를 풀 때 OMR답안지를 두고 마킹하는 연습을 하거나, 여의치 않을 때는 시간을 10분정도 줄여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했습니다. 실전에 가면 평소 실력이 발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간관리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때 잠깐 고민한 뒤 풀이법이 바로 보이지 않으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 문제를 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입법고시와 같이 어려운 PSAT 시험에서는 모든 문제를 푼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문제를 정확히 풀어서 맞히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시간을 강제할 수 있는 스터디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3. 오답분석

PSAT을 풀고 채점을 하다 보면 결국 항상 하는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오답을 분석하고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 역시 문제를 한 번 풀고 나면 다시는 시험지를 보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오답의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 번에 문제를 풀 때 해당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시험이 다가왔을 때에는 제가 유독 약한 유형의 문제는 넘겼다가 나중에 푸는 방식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특히 상황판단의 경우 이와 같은 전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퀴즈의 특성상 자신이 약한 부분의 풀이법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다른 문제의 정답률을 높이고 마음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4. 컨디션 조절

PSAT은 실력 외에도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시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컨디션 조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평소에는 긴장을 잘 하지 않는 편임에도 시험 전날에는 잠이 잘 오지 않아 좋지 않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르러 가곤 했습니다. 이는 결국 언어논리를 풀 때 집중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보러 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시험 전날은 무리하지 않고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PSAT 시험은 하루 종일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체력 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항상 김밥 등 간단한 점심을 챙겨 갔습니다. 잘 모르는 시험장에서 나와 점심을 먹기 위해 돌아다니고 나면 자료해석을 풀 때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초콜릿 등을 챙겨가기도 했습니다.

5. 과목별 학습법

저는 특별히 PSAT강의를 수강해 본 적은 없고 시험 전에 학원에서 시행하는 전국모의고사에만 응시했습니다. 다만, 평소에도 글을 읽을 때 중심 문장에 밑줄을 치고 키워드에 동그라미를 치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한 것이 언어논리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PSAT은 결국 시간 싸움이어서 빨리, 정확하게 지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 어렵지 않은 사회과학 서적을 골라 단시간에 지문을 읽고 중심 내용을 말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황판단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과목입니다. 평소에도 퀴즈를 푸는 것을 좋아했고, 고등학교 때 선택과목으로 법과사회를 배웠던 것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상황판단을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겁내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퀴즈의 경우 문제를 풀기 전에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 때 '내가 못 푸는 문제는 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으로 겁먹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제를 풀기에 앞서 긴장할 경우 풀 수 있는 문제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료해석 과목은 언제나 저에게 부담이었습니다. 표를 읽는 것 자체에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지만 모든 계산을 정확히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저의 습관을 인정하고, 계산하는 선지의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기에 4개의 선지가 있을 때 가장 계산이 쉬운 것 같은 선지를 골라 먼저 계산하고 해당 선지가 틀렸을 경우 이를 소거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격상 어렵산을 잘 하지 못해서 전략을 수정한 것이지만, 다른 분들께서는 어렵산을 통해 계산 시간을 줄이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Ⅲ. 제2차 시험공부

1. 행정법

행정법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암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수험기간 동안 박도원 선생님과 류준세 선생님의 교재를 기초로 공부했습니다. 특히 답안 작성 방법론을 박도원 선생님께서 꾸준히 봐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작년 행정고시에서 상대적으로 쉬운 논점을 누락하는 실수를 했던 터라 이번에 입법고시를 보면서 많이 긴장했는데, 다행히 큰 논점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행정법의 경우에는 학설 및 판례를 외워서 잘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답안을 작성할 때 법조문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입법고시

문제에서 법조문이 굉장히 많이 주어졌는데, 이를 자세히 읽고 사안을 포섭할 때 활용한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법조문을 문제에 제시했다는 것은 해당 법조문을 활용하기를 바라는 의도가 포함된 것이라고 보고 이를 충실히 활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학설보다는 판례 및 사안포섭에 방점을 두고 공부했습니다. 사례에 제시된 단서나 상황을 녹여 결론을 도출하는 데 활용할 경우 사례형 답안지를 작성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밖에도 판례를 적을 때 키워드를 학습하여 답안지에 충분히 녹여내고자 노력했습니다. 따로 판례 번호까지는 외우지 않더라도 판례의 중심 내용은 정확히 적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암기했습니다.

2. 경제학

경제학의 경우 항상 자신이 없는 과목이었기에 행정법과 더불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 가서 점수가 낮게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답이 틀렸을 경우 언제든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부담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번 입법고시에서도 답안을 쓰다가 계산 실수를 하는 바람에 다시 답안을 작성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경제학이 어렵기 때문에 조언을 드릴만한 입장은 아닌 것 같지만, 결국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내용 정리는 주요 교수님의 교과서 - 예를 들어 미시경제학의 경우 이준구교수님, 거시경제학의 경우 정운찬·김영식 교수님의 책 - 로 하

되, 문제를 충실히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경제학 강의 기간 외에도 황종휴 선생님의 연습책이나, 김진욱 선생님의 600제 등을 꾸준히 푸는 방식으로 경제학의 감을 잃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이 때 강제성을 부여하고 모르는 문제를 질문하기 위해 스터디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10-15문제라도 꾸준히 경제학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장기적인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3. 행정학

행정학은 많이들 보시는 한국행정학과 재미있는 행정학을 기초로 서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 이를 중점적으로 공부했고, 재무 파트는 하연섭 교수님의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책으로 보충했습니다. 최근 이슈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여 행정학 논문도 틈틈이 찾아 보았습니다. 작년에는 신문을 약 6개월간 스크랩했는데, 사례에 과도하게 집착하다보니 결국 주요한 논점을 간과하는 것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 올해에는 문제에서 묻는 논점에 충실하게 답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정학 답안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묻는 것에 충실히 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경호 선생님의 수업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송윤현 선생님의 수업으로 답안작성 방법론을 연습했는데, 송윤현 선생님께서 항상 수업시간에 강조하시는 것처럼 묻는 바에 대답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천천히 살펴보고 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입법고시 역시 응시자들의 행정학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학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천천히 살펴보고 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시간을 들여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큰 문제에 부수하는 소문제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들 질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내려야 하는 결론이 무엇인지를 연계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글이 한 눈에 들어오도록 각 목차에 부제를 다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4. 정치학

정치학은 신입동에서 공부하면서 대부분의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공부법이 잘 잡히지 않았던 과목이었는데요. 마지막에 김희철 선생님의 펀더멘탈정치학과 작년 합격생 서브로 내용을 정리하고 들어갔습니다. 정치학 답안을 쓰는 데 있어서 우선 기본적인 정치학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논문을 정리하여 혹시 모를 불의타에 대비했습니다.

특정 강사분의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학의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비단 정치학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 해당됩니다. 기출을 반복해서 풀어보면서 자신만의 답안 작성틀을 마련하고 이에 기초하여 글을 작성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기출 풀이는 학원 모의고사와는 다른 기출문제

만의 문제의 뉘앙스를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주어 실전에서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5. 정책학

정책학은 행정학과 유사한 점이 많아 사실상 행정학과 같이 공부했습니다. 많이들 보시는 정정길 교수님의 정책학원론을 바탕으로 남궁근 저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서브를 만들었고, 이를 반복하여 학습했습니다. 정책학이 양이 많아 한번 정리하기는 힘들어도 일단 정리되다 보면 행정학과 시너지도 나고 공부하기에도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입법고시에서 정책학을 고득점 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IV. 제3차 면접 공부 방법

입법고시 2차 결과가 발표되면 합격생들끼리 스터디를 구성하게 됩니다. 입법고시 면접은 행정고시 면접보다는 토론 시간도 짧고 개인면접 시간도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그래도 면접이 매우 부담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고시 면접 경험도 없었기에 제 경우 특히 그러했습니다.

스터디 구성 후 면접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도움을 받아 그룹토론과 개별면접에 대비하였고, 감사하게도 작년에 합격하신 선배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글을 빌어 도움을 주신 권순조사무관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의 시사 주제를 중심으로 그룹토론 주제에 대한 자료를 정리했고, 카메라로 토론 및 개별 면접을 촬영하여 피드백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토

론할 때 저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고치고자 하였습니다.

입법고시 면접은 행정고시 면접보다는 부담이 적지만 시간이 짧아 토론 및 개별 면접에 익숙해지지 못한 채로 시험에 들어갈 가능성이 큼니다. 틈틈이 시사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 자신이 왜 입법부에 근무하고 싶은지 꾸준히 생각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V. 고시 생활과 관련하여

1. 체력관리

저는 체력이 좋지 못해서 2차를 준비하는 기간에 몸이 아파 항상 힘들어하곤 했습니다. 체력이 떨어져 영양제를 맞거나 병원을 찾는 일이 잦았고 이는 집중력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1차 기간에 집중적으로 헬스장을 등록해서 체력을 길렀고 2차 기간에도 4~5월까지 운동은 쉬지 않았습니다. 행정고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입법고시 역시 장기 레이스라는 점에서 체력을 안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대한 몸을 상하지 않게 하는 선에서 공부하려고 노력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2. 스트레스 관리

일주일 중 하루는 저에게 휴식을 준다는 생각으로 숙면을 취했습니다. 좋아하는 예능도 틈틈이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아예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그때그때 풀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아예 받지 않고자 하는 것

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바꾼 후 오히려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공부하고자 했던 공부량을 채우지 못했다고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 아니라, 오늘 휴식을 취함으로써 내일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무리한 계획은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저의 수준과 체력, 생활패턴을 기초로 적절한 공부량을 정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VI. 글을 마치며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초시 이후 지금까지 스터디에서 저보다 실력이 뛰어난 분들을 많이 만났고, 그분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주변에 좋은 분들이 계셨기에 고시 생활에 있어 지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었고, 결국 입법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지면을 빌어 지금까지 저와 스터디를 같이 하셨던,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저를 믿고 응원해 주셨던 부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상대적으로 입법고시는 행정고시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시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정고시와는 또 다른 입법고시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행정고시에 비해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해서 전략을 세우시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 국회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 ■ ■ 최연소 합격기
(2014년(제30회) 입법고시 최연소 합격)

불안하더라도 자기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야



김 정 환

- 민족사관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3년 재학 중
- 2014년 제30회 입법고등고시 최연소 합격

I. 시작하며

꿈만 같은 최종합격통지를 받고 나서 많은 축하 속에서 지금까지 정신없이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합격수기를 쓰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낯 뜨거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 수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보태진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수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공부하는 스타일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것이고, 그 중 무엇이 절대적으로 맞다와 같은 답은 존재하지 않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한 편의 수필을 읽듯이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I. 기간별 수험생활

1. 시작: 2013년 1월~ 3월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글을 쓰고, 생각하는 과정을 밟는 것 자체를 좋아했습니다. 또, 이왕 한 번 삶을 살 것이라면, 나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까닭에 저는 고시를 통과하여서 공직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이러한 저의 적성과 꿈에 부합한다고 생각했고, 고시 준비를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은 정신없이 흘러갔고, 친구들은 모두들 군대에 입대하거나, 로스쿨, 고시 준비를 시작하고는 했습니다. 저 역시 대학교 2학년 1월에 이러한 고민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 일찍 가고픈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지들 사이에서 고민할 시간에 고시가 무엇인지 감이라도 잡아보자는

생각에 행정법 예비순환을 김정일 강사님 것으로 들었습니다. 2월에는 정신없이 새내기 배움터 행사 준비로 바빴고, 결국 3월이 되어서야 예비순환 행정법을 한 번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2. 2013년 3월~7월

이 기간 동안의 저는 최대한 행정고시의 모든 과목을 여러 번 익혀보자는 취지로 활용하였던 것 같습니다. 행정법의 경우 박정훈 교수님 사례집을 한 번 다 읽었고, 경제학은 학교 거시경제이론 수업을 활용하고 미시경제학은 황종휴 강사님의 예비순환으로 보충하면서 한번 훑게 되었습니다. 행정학은 박경효 교수님의 예비순환을, 재정학은 학교 재정학 수업을 수강하면서 김진욱 강사님의 1순환을 들으면서 한 번 다 볼 수 있었습니다. 통계학은 1학년 2학기 때 들었던 통계학 수업을 떠올리며 부족한 내용은 고고생 통계학으로 보충했었습니다.

3. 2013년 8월~12월

이때가 제게 있어서 가장 많은 실력의 향상이 있었던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름방학 때는 경제학 1순환(황), 행정법 1순환(류)을 수강하면서 매일 그 날 배운 것을 다시 복습하고 철저하게 암기했습니다. 또, 오전수업으로 9시부터 12시 반까지 학교수업을 듣고 나서 점심을 먹고 나면 대략 1시 반쯤부터 행정학 1순환 기간에는 박경효 교수님의 행정학 1순환을, 그 이후부터는 중앙도서관에서 고시공부를 하였습니다. 10월부터는 배웠던 것을 반복해서 외우는 것

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부했습니다. 중간 중간에 레포트 제출, 중간, 기말 시험 등으로 인해 흐름이 끊긴 적도 있었지만, 미시경제이론이나 경제성장론 수업은 오히려 경제학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고, 그 결과 12월 말쯤에는 1순환에서 배웠던 전 과목의 내용을 대략 헛갈리지 않고 암기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4. 2014년 1월~2월

이 기간에는 PSAT 공부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부했습니다. 입법고시는 워낙에 PSAT이 어려워서 입법고시 PSAT 통과를 목표로 삼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1월에는 오전 9시부터 2시 즈음까지는 PSAT을 하고, 그 이후의 시간부터는 2차 과목을 다시 한 번 암기하거나 보충 사례, 자료를 찾아 정리하는 방식으로 활용했습니다. 2월 15일이 입법고시 PSAT이었기 때문에, 2월 처음 두 주 동안은 모든 시간을 PSAT에 투자했습니다. 매일 석치수, 박준범 강사님의 실전모의고사 세트를 아침부터 집 갈 때까지 풀었던 것 같습니다. 입법고시 PSAT을 치른 후에도 예상 합격 컷에 못 미쳐서 행정고시 PSAT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던 중 3월 초에 합격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5. 2014년 3월~합격

30일 정도 밖에 시험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3순환 강의를 열른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김진욱 강사님의 경제학 3순환을 오전 영상반으로 수강하고, 학원 근처 독서실을 끊어서 점

십시간 이후부터는 류준세 강사님의 13년도 행정법 3순환을 인강으로 하루에 6회씩 들었습니다. 시험이 2주 남은 시점에서 행정법 3순환을 끝내게 되었고, 남은 2주 동안은 1순환 암기자료를 한 번 더 외운 다음, 행정학의 최근 쟁점들을 14년도 2순환 강의자료를 구해다가 정리하고 나머지 과목들은 답안 작성을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험을 다 치르고 난 후 처음 든 생각은 잘 치른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행정법 3순환과 행정학 3순환을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미흡하게 쓴 부분이 자주 떠올라 점점 마음을 비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5월 14일 2차 합격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당일에 바로 행시사랑에서 면접 스테디가 결성되어 일주일 간 면접을 준비하였습니다. 21일 면접을 치르고 나서도 잘 해냈다는 느낌이 있었고, 그 결과 23일 합격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III. 과목별 수험생활

1. PSAT 준비

2012년 6월부터 틈틈이 행정고시 PSAT을 풀기는 했지만, 입법고시 PSAT은 멋모르고 도전했다가 반타작 가까이 할 정도로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PSAT 공부를 13년 12월부터 시작하면서, 자료해석의 문제 풀이 요령, 분수 비교 요령을 습득한 후로는 행정고시 PSAT의 경우 커트보다 안정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었지만, 입법고시 PSAT의 경우 여전히 커트보다 아래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입법고시 PSAT을 준비할 바엔, 차라리 행정고시 2차 과목에 좀 더 투자할지 고민도 했지만, 그래도 시험이 있는 한 그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 판단하여 입법고시 PSAT에 1월 중순부터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상황판단의 경우, 입법고시 PSAT에서는 지나치게 어렵거나 문제기간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건너뛰고 푸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또, 비교적 쉬운 매칭형 문제나 제가 조금은 더 익숙한 논리퍼즐 문제는 박준범 강사님의 상황판단 책으로 공부하면서 그 유형에 좀 더 익숙해지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에 더해 박준범 실전모의고사를 14년, 13년 두 해 것을 모두 풀었습니다.

자료해석은 문제풀이 요령을 알게 되고 문제에 자주 숨어있는 함정들에 익숙해지고 나니 실력이 가장 많이 올랐던 과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입법고시의 경우 선지들이 정교하게 구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확실히 아닌 두 개 정도만 제외하게 되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선지를 제거해나가는 작업에 좀 더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문제를 보자마자 표에 제시된 수치가 비율인지, 정량적인 수치인지 등을 가늠하고 자료의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문제에 접근하는데 드는 시간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처음 본 입법고시 PSAT에서 자료해석 점수로 부족한 상황판단 점수를 메워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언어논리의 경우 저는 모의고사의 질

이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입법고시 기출문제를 여러 번 푸는 방식으로 준비했었습니다. 특히 지문을 모두 세세히 읽기보다는 키워드 위주로 빠르게 읽고 문제를 보면서 다시 읽는 방식으로 푸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그 결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경제학

황종휴 선생님의 경제학 1순환을 들으면서 트리니티 위주로 전체적으로 한번 암기 한 것과,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반복하면서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의 zip과 연계해서 읽어본 것이 크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학교 수업에서 미시경제이론, 거시경제이론을 심화과정으로 수강하면서 고시 문제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시켰던 것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성장론의 경우, 경제성장론 수업을 따로 들으면서 관련된 서적을 여러 번 읽게 되었는데, 그 덕분에 올해 입법고시 경제학 2문의 성장론을 남들보다 좀 더 엄밀하게 도출과정을 서술할 수 있었고, 그 결과 80점이 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개념을 정확히 아는 것과 그것들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 마지막으로 그래프의 함의를 도출하는 능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강사 요약집을 여러번 읽고 교과서로 흐름을 보충하려고 노력하였고, 나아가 정운찬, 김영식 교수님이 쓴 거시경제학의 각 단원 연습문제들을 모두 풀어보면서 그러한 능력들을 기르려고 노력하였던 것이

고득점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3. 재정학

재정학은 공부 부담이 크지는 않았던 과목이지만, 암기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연결된 논점을 제한된 시간 내에 모두 짜임새 있게 서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준구 교수님의 재정학 수업을 들으면서 가능한 한 교과서의 모든 내용을 목차를 짜서 암기하려고 노력하였고, 각 단원 연습문제도 빠짐없이 두 세 번씩 풀어보게 되었습니다. 또, 황종휴 선생님의 재정학 1순환을 들으면서 좀 더 심화된 이론이나 지방재정과 관련한 최근의 이슈를 추가하여 별도로 정리하였습니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입법고시를 준비하면서는, 경제학, 행정법, 행정학만으로도 시간이 벅찼기 때문에 답안작성 연습은 경제학의 미시경제론에 대한 답안 서술로 대체하고 남은 시간 동안은 내용을 반복하여 정리하고 암기하였습니다. 2순환 3순환을 듣지는 못하였지만 재정학에서 70점을 넘길 수 있었던 것도 개념의 정리와 연결, 그리고 암기에 중점을 두었던 공부방법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4. 행정학

처음부터 감을 제대로 잡지 못했던 과목이기도 하고, 나아가서 공부기간이 짧은 만큼 사례나 기본 개념에 대한 숙지를 충분히 할 여력이 없었던 과목이기도 하여서 그리 길게 공부방법에 대해서 논하기가 어려운 과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초시인 만큼, 기본 개념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서 박경효 교수

님의 예비순환과 1순환을 마치고 나서는 재미있는 행정학을 기본서로 삼고 최대한 많이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또, 작년 3순환 자료집을 모두 구해다가 사례를 정리하고,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수치를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2순환 자료집을 구하여서 최근 시사 이슈나 주요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론이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만큼 논리적인 면이 돋보이게 쓰는 것에 좀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남들이 많이들 쓰는 기본 내용은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하고, 남는 분량을 연결 문장이나 논의의 전제, 필요성, 접근의 타당성 등을 밝혀주는 형식으로 답안을 차별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접근이 효과적이었는가에 대한 판단이 저 스스로 확실히 설 정도의 점수에 달하지는 못하였지만, 나름대로 주어진 준비 기간 내에서 50점대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차별화 전략도 기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행정법

시작부터 엄청난 양의 암기와 개념 정리를 요하는 것 같아 접근하기가 난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언젠가는 정리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행정법 1순환을 복습, 예습을 모두 하며 따라가는 것, 강사가 강조하는 부분이나 판례 표현을 따로 정리하여 입에서 자동으로 나오도록 외워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작년 여름 방학 때 반복한 덕분에 비교적 단기간 내에 행정법 전체에 대한 체계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사례집을 여러 번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사례에서 어떤 논점이 숨겨져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뿐더러, 사례에 대한 해설을 읽어 보면서 암기를 다시 한 번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선배의 추천으로 박정훈 교수님의 사례집을 작년 봄에 읽고 나서, 가을 즈음에는 case 행정법 특강을 읽었는데, 순서를 반대로 하여 좀 더 난이도가 낮은 case 행정법 특강을 먼저 읽었더라면 좀 더 수월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행정법 역시 50점대 초반의 점수를 얻어서 다른 합격자 분들에 비하면 비교적 점수가 낮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1년간의 준비 기간 동안 제 스스로에게는 만족할 만한 점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반복해서 책과 판례 표현을 익히는 공부방법과 사례집을 여러 번 읽었던 것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6. 통계학

통계학이야말로 학교 강의가 가장 크게 도움이 되었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1학년 2학기 때 일반통계학 책으로 수업을 하였는데, 고시생들이 주로 본다는 현대통계학 책과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 많은 부분 겹쳤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현대통계학을 일회독 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았고, 2회독을 하면서는 고고생 통계학과 같이 보면서 생소한 개념을 이해하고 외우고, 심화이론이나 통계적 추론 방식을 따로 정리하여 핸드북처럼 들고 다녔습니다. 특히 통계학은 표본분포의 특징을 서술하거나 중심극한정리를 사용할 때 반드시 등장해

야할 전제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좀 더 꼼꼼히 읽어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중의 통계학 기출문제집과 해설집을 사서 풀면서, 실전문제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원래부터 수학을 좋아했던 터라, 통계학을 공부하는 것이 크게 힘들지 않았고, 때문에 다른 과목 공부가 잘 안 될 때 틈틈이 봤던 것 같습니다.

실전에서는 소위 말하는 불의타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위험 감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입법고시 통계학에서도 상관계수와 회귀계수가 같은 조건이 무엇이나고 묻는 비전형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당황하지 않고 최대한 아는 범위 내에서 상세하게 서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의타 문제는 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당황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제가 아는 범위 밖의 문제가 나왔음에도 통계학에서 만족할만한 점수를 얻었습니다.

IV. 면접

2차 시험에 붙기 전까지는 '면접이 무슨 문제겠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면접을 준비하려고 하니 알길이 막막했습니다. 다행히 재경직렬 사람들끼리 결과 발표 당일에 모두 모여서 스터디를 결성한 것이 크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세 조로 나누어서, 매일 새로운 시사 주제를 가급적이면 접치지 않게 준비해오고 이를 바탕으로 집단토론을 연습하였습니다. 이때 자료로는 국회에서 발간한 간

행물이나 시사이슈를 집약적으로 정리해 놓은 사이트들을 이용하였습니다. 또, 3~4일이 지난 후에는 자기소개서를 서로 돌려 읽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면접을 진행함으로써 실제 면접장에서의 긴장을 덜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이때 면접관으로 와주신 선배 합격자 분들, 사무관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셨고, 텔레마와 같은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무엇을 택할 것이냐와 같은 임기응변을 요하는 문제들을 강도 높게 물어봐주셔서 실전에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스터디 활동을 처음 하였을 때 저는 좌절 섞인 스트레스에 고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경험이 풍부하시고 말씀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위축되기도 했었고, 두 번째 집단토론 때에는 별로 어렵지 않은 말을 하면서도 이유 없이 떨고 있는 제 자신이 부끄럽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토론 도중에 뛰쳐나가고 싶은 욕구를 간신히 억눌렀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 계속해서 연습하다보니 점점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말을 너무 빨리, 길게 한다는 지적도 고치고 자 많은 노력을 병행했습니다. 그 결과, 실전에서는 연습했던 것과 같이 천천히, 간결하게 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점을 채워주신 스터디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V. 전반적인 측면

저는 원래부터 규칙적인 운동과는 거리가 조금 먼 사람이라 따로 시간을 내

어 운동하기 보다는, 가끔씩은 중앙도서관에서 집까지 20분 정도 걸어가거나, 주말에는 뒷산에 오르기도 하면서 운동했습니다. 사실 컨디션 유지에 있어서 운동보다도 중요한 것은 먹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시공부를 하다보니 인스턴트 식품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때문에 가끔적이면 학식을 먹고 가쁜한 몸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고시를 시작하기 전에는 하루에 8시간씩 매일 잤던 패턴이 남아 있어서 이를 1시간 정도 줄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보통 10시 즈음에 집에 돌아오면, 샤워를 하고 쉬면서 12시 정도에 잠에 들었습니다. 그 후 아침 7시 30분 즈음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학교 도서관으로 향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부를 하다가 졸리면 잠을 깨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차라리 10분 정도 쪽잠을 자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공부 초기에는 이러한 쪽잠의 효과를 몰라서 좀 더 고생했던 것 같습니다.

VI. 마치며

공직자가 되겠다는 희망 하나로 고시를 처음 시작할 때, 정보를 얻겠다고 합격 수기를 읽으면서 눈앞이 캄캄해져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 볼 줄지도 모르는 고시 공부를 뒷바라지해주시겠다고 신림동으로까지 이사오셨던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대 공부에 바쁘면서도 집이 이사오면서 생기는 불편을 제게 돌리지 않고 기꺼이 감수해주었던 제 누나에게도 감사합니다.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서로에게 힘이, 또 기댈 곳이 되어주었던 친구에게도, 그리고 제가 고민이 있을 때면 언제든지 들어주고 긍정적으로 제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해주었던 친구들에게도 그동안 잘해주지 못한 것, 기대기만 한 것에 미안하고 그럼에도 제 곁에서 참아주고 있어 준 것, 고마운 사람으로 남아주었다는 것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그들 모두에게 고마운 사람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도록, 나아가 공직자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고마운 사람으로 남도록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